도보탐방 관광해설 전주옛길까지 확대

시, 남고산성을 연결한 시나브로 산성길 투어 역사문화시설투어도 마련

전주시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이 전주한옥마을에서 남고산성과 전주옛길, 문화시설까지 확대 운영된다. 사진은 전주시가 마련한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 시나브로 산성길 해설투어.

전주시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이 전주한옥마을에서 남고산성과 전주옛길, 문화시설까지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을 5월부터는 오목교와 국립무형유산원, 남고산성을 연결한 시나브로 산성길 투어와 한옥마을 역사문화관, 선비문화관, 소리문화관, 김치문화관 등을 연결한 역사문화시설 투어, 경기전과 풍남문, 전라감영길까지 연결한 전주 옛길투어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가 마련한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 시나브로 산성길 해설투어는 매주 토요일 10시에 전주향교 앞에서 출발해 완판본문화관을 거쳐 오목교를 따라 전주천을 둘러보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산성천 시나브로길을 지나 충경사에서 마무리되는 도보 탐방형 관광해설코스로 한옥마을과 연계해 오목교, 남고산성 일대 관광자원까지 연계한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이다.

시나브로 산성길 투어에 참여하면 옛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담겨 있는 전주향교부터 전주 출판문화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완판본문화관, 하얀 돌다리가 매력적인 오목교, 무형문화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산책하기 좋은 산성천 시나브로길, 임진왜란 당시 전주성을 지킨 이정란 장군의 사당인 충경사까지 이어지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출발시간과 장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전주향교 정문 앞이며, 단체로 희망할 경우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전주한옥마을 역사문화시설을 찾아 볼 수 있는 역사문화시설투어도 마련됐다. 역사문화시설 관광해설투어는 매일 오후1시로 오목대 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한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한옥마을 역사관과 선비문화관을 포함한 역사문화시설 관광해설투어 프로그램은 기존 전통한지원과 소리문화관, 김치문화관을 연계된 도보형 탐방프로그램으로, 데일리 정기투어프로그램인 한옥마을 골목길 해설투어와 연계하면 더욱 풍성한 한옥마을 투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되던 전주부성 옛길 투어를 전주 옛길 투어로 변경하고 탐방코스를 전라감영길에서 객리단길(객사길)과 인접한 풍패지관(전주객사)까지 확대해 경기전-전동성당-풍남문-전라감영길-전라감영복원지-풍패지관(전주객사)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운영되는 전주시 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은 △경기전투어(매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투어(오전 11시, 오후 3시) △오목대·자만벽화마을 투어(오후 2시) △한옥마을 역사문화시설투어(신규, 오후 1시) △전주 옛길투어(확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3시) △시나브로 산성길 투어(신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로 구성되어 시간대별로 운영돼 전주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관광해설투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상업경진대회 오늘 팡파르

전주상업정보고에서… 창업실무 등 11개

전북도내 상업계 고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업·정보능력을 겨루는 전북상업경진대회가 24일 전주상업정보고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상업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15개 특성화고 학생 및 학교장, 지도교사 등 총 62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24일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종목별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이날 하루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 실무, 비즈니스 영어, ERP, 금융 실무, 취업설계 포트폴리오, 세무실무, 디지털 동영상, 상업경제 등 11개 경진분야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6명씩 총 66명에게 금상(1명)·은상(2명)·동상(3명)과 한국생산성본부장상(11명) 및 전주상공회의소장상(11명), 대한상업교육회전북지부장상(11명) 등 총 33명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한다.

또 대회가 열리는 동안 동아리 엑스포와 동아리 콘테스트 경연 종목도 진행된다. /기동취재반

전주대 대학로에 맑은 수돗물 '콸콸'

전주시, 백마산길 840m 구간 노후 수도관 교체

내달 초 준공 목표로 현재 90% 공정율 보여

설치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전주대학교 대학가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앞 천잠로사거리에서 전주대학교까지 효자동 백마산길 840m 구간에 총 2억85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상수도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1983년 설치된 수도관이 노후돼 잦은 누수와 녹물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만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시는 전주대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대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최대한 통행과 소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일공사와 야간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백마산길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오는 6월초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사업 추진 중 지난 4월 24일 야간시간 대 총 5시간에 걸쳐 불가피하게 단수를 실시했으나 단수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와 사업계획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과 대학생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덕분에 단수로 인한 민원과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불신과 민원이 많았던 해당지역의 300여 세대(약 750명)가 오는 6월부터는 교체된 수도관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수돗물의 수질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구간별로 시범가구를 정해 수도꼭지수를 채수할 계획이다.

전주대 대학가 인근 주민은 "노후관 때문인지 몰라도 적수가 간혹 있었고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가 다소 꺼림칙했었다"라며 "교체된 수도관을 통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돗물 불신해소와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전주지역내 수도관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 운영기관 선정

내달부터 국내·외국인 학생 100명 모집

비빔밥·태권도 등 한국문화 체험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와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는 '2018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6월부터 한국과 외국인 학생 5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학생들은 10명씩 팀을 이뤄 각 팀마다 교직원과 학생 선배가 멘토가 되어 비빔밥 체험, 태권도, 체육대회 등과 같은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우호를 증진한다.

특히 팀별로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과제도 수행함으로써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남호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대학으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타 문화 포용력과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Myf 황준원 대표 초청

전주대, 스타강의 진행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23일 JJ아트홀에서 미래채널 MyF 황준원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이하 스타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황 대표는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미래의 변화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혼밥, 혼술족, 편의점의 증가, 나홀로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대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X와 Y세대를 잇는 'Z세대'로 YOLO(You Only Live Once;한번 뿐인 삶)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세대라 소개하면서 Z세대 이후 세대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 즉 'A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동취재반